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, INDUSTRY & ENERGY

보 도 자 료

희망의 대한민국 http://www.motie.go.kr

배포 즉시 보도해주시기 바랍니다.

문의: 통상정책총괄과 서덕호 과장(044-203-5620), 박미령 사무관(044-203-5622)

G20 통상장관 세계무역 성장세 회복방안 논의

- 산업부 문재도 차관 제3차 G20 통상장관회의 참석 -

□ G20 통상장관들이 **10.5-6일 터키 이스탄불에 모여** 최근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는 **세계무역을 회복시키기 위한** 다양한 방안들에 대해 논의함

○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지속되고 있는 세계무역성장세 둔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무엇보다도 **WTO 무역원활화협정(TFA, Trade Facilitation Agreement)의 조속한 비준·이행**과 **보호무역조치의 동결(standstill) 및 철폐(roll-back)가** 필요하다는데 공감함

○ 또한, 세계시장 진입이 어려운 **중소기업 및 저소득개도국의 세계가치사슬(GVC, Global Value Chain) 참여를 촉진**하기 위한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보고, 이와 관련된 각국의 정책경험을 공유하고, G20 차원의 가능한 지원방안을 논의함

□ G20 회원국들은 금년 12월 케냐 나이로비에서 열릴 **「제10차 WTO 각료회의」가 WTO 다자무역체제에 중요한 전환점이** 될 것이라는 데에 공감하면서, 나이로비 각료회의의 예상성과, 개도국 및 최빈개도국(LDC)의 다자무역체제 편입을 위한 WTO의 역할, 지역무역협정(RTA)과 다자무역체제의 조화방안 등에 관해 논의함

○ 특히, **2013년 각료회의 합의사항의 이행을** 촉구하고, 나이로비 각료회의 성과 도출을 위해 **개발 이슈 등을 포함하는 소규모 패키지를 구성**하는 방안, **나이로비 각료회의 이후에 WTO에서 논의될 의제**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함

□ 동 회의에 참석한 **산업통상자원부 문재도 차관은 각 논의의제에 대해 한국의 현황과 정책경험을 소개**하고, **G20 차원의 필요한 국제공조방안을** 제안함

○ 무역성장세 회복을 위해 FTA 체결 확대, 전자상거래 활성화 등의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소개하고,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**뉴 노멀(New Normal) 시대를 맞아** 세계경제의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커진 상황임을 감안, **국제사회 선도국들이 국내경제정책을 실행하는 경우에 세계 및 다른 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** 신중히 접근해 주도록 요청함

○ 한국은 **총 수출 중 부품·소재 수출 비중이 50% 이상으로** 높아 한국기업이 무역 및 해외투자 확대에 따른 글로벌화를 통해 자연스럽게 개도국으로의 기술이전과 세계가치사슬(GVC)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하고, **APEC에서 '중소기업 지원' 의제의 주도국으로서** '15-16년간 동 분야 논의를 주도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등 중소기업의 세계가치사슬(GVC) 참여 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 중임을 소개함

○ 문 차관은 또한, 우리나라의 **무역원활화협정(TFA) 수락서 기탁** 등 발리패키지 이행을 위한 노력을 설명하고, **나이로비 패키지 구성, 포스트(Post) 나이로비 WTO 의제 설정 등을 위해 적극 협력해** 나갈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힘

□ 이번 G20 통상장관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은 필요한 추가 협의를 거쳐 **오는 11월 중순에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의 성과물로 구체화될** 예정임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총괄과 서덕호 과장(044-203-5620), 박미령 사무관(044-203-5622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